

디자인을 보면 그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읽을 수 있다. 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위대한 의자, 20세기의 디자인:100 Years, 100 Chairs>은 그 사실에 주지한 전시. 연대기별로 전시해놓은 각 100개의 의자는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과학을 담고 있다.

에디터 유소라 자료 제공 서울시립미술관(2124-8800)

## 의자에 담긴 시대 정신에 관하여

왜 하필 의자인가? 좌식 생활을 하던 우리나라와 달리 입식 생활을 하던 서양에서 의자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구였을 것이다. 아니 먼 서양의 과거를 거스를 것까지도 없다. 우리가 하루 중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을 헤아려보라. 사무실에서, 커피숍에서, 집에서, 극장에서, 공원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의자 위에서 보낸다.

각 장소의 특징에 따라 의자의 모양은 제각각이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원의 의자와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피숍의 의자는 그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 의자의 형태가 용도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은 의자가 사람들의 일상을 반영한다는 증거. 불과 1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의자의 디자인이 지금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의자는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그 시대의 취향을 담고 있다.

의자 디자인의 변화는 곧 역사의 흐름인 것. 많은 유명 디자이너들이 의자 디자인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스위스의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Vitra Design Museum)'의 순회 전 <위대한 의자, 20세기의 디자인:100 Years, 100 Chairs>에서 전시한 100개의 의자를 두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을 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자의 역사는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가속화되어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100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의자 디자인은 예술성과 실용성을 넘나들었고, 다양한 소재가 시도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의자 디자인은 계속 변하고 있다. 마치 쉬지 않고 흐르는 역사처럼.

100개의 의자 중에서 100년의 역사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는 7개의 의자를 선별했다. 예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다. 6

Wiggle Side Chair\_ 프랭크 O. 게리(Frank O. Gehry), 1972  
플라스틱을 대체한 '에지 보드(Edge Board)' 라는 가벼운 보드지로 만든 작품.  
포장 재료를 가구의 재료로 사용한 에지 보드지는 당시 유명 디자인 이론가에게 환경친화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Coconut Chair \_ 조지 넬슨(George Nelson), 1955

1960년대의 라이프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암시하고 있어 대중문화를 반영한 디자인이라는 평을 받는다. 의자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혼합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



Coconut Chair

La Chaise\_찰스 임즈&레이 임즈(Charles & Ray Eames), 1948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에서 '저가의 가구 디자인'을 주제로 열린 국제 공모전에 출품한 임즈 부부의 작품.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대회 출품작 중에서 단연 눈에 띈 디자인이었다.



La Chaise

UP5와 UP6, Donna \_ 가에타노 페세(Gaetano Pesce), 1969

팝 아트와 인체 형상에 관심이 많았던 디자이너 가에타노 페세의 취향을 보여주는 작품. 감금과 억압을 상징하기 위해 공(쇠 구슬을 비유)을 붙인 선사시대의 풍만한 여체와 닮은 모양.



UP5와 UP6, Donna

Poltrona di Proust\_알렉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 1978

1980년대 디자인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탈리아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멘디니가 디자인한 가장 유명한 작품. 그는 1978년, '리디자인(re-design)' 시리즈를 선보였는데 프로스트는 그 시리즈 중 하나.

How High The Moon\_시로 구라마타(Shiro Kuramata), 1986

듀크 엘링턴(Duke Ellington)의 재즈곡 제목에서 따온 것으로 비물질화된 표면을 통해 희미하고 얇은 달빛과 무중력의 가벼움을 표현했다.



How High The Moon

MR 90, Barcelona\_루드비히 미즈 반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 1929

1929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의 내부 디자인을 맡은 디자이너 미즈 반 데어 로에의 작품. 로에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 권력자의 힘을 상징하던 가위 모양의 접히는 의자에서 영감을 얻었다.



MR 90, Barcelona



Poltrona di Proust